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7. 25.(목) / 총 2매(본문1, 참고1)
담당 부서	건설산업과	담당 자	·과장 박정수, 사무관 박정규, 주무관 권영일 ·☎ (044) 201-3542, 3543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은 잠정안으로 추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확정할 예정입니다.

□ 정부가 오늘 발표한 소형 규격기준은 국제규격, 소형장비의 글로벌 시장현황, 기술개발 동향 등 참고하여 소형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제 규격에 따라 제작된 글로벌 업체 장비(3톤 이하)를 참고하여,

- 지브 길이의 경우, 타워형은 최고 42~55m, 러핑형은 최고 40~41m까지 제작·판매되고 있어 유형별 각 최고 길이 상한선을 50m, 40m으로 제시한 것이고,
- 모멘트는 마스트에서 지브 끝단으로 최대 인양톤수를 들 수 있는 거리가 지브 길이의 최대 54~73%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지브 중간의 50%에서 모멘트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 $733\text{kN} \cdot \text{m} = 25\text{m}(\text{지브길이 } 50\text{m의 } 50\%) \times 2.99(\text{최대인양톤수}) \times 9.8(\text{중력가속도 상수})$

□ 다만, 이번 규격안은 잠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추후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하여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등, 7.25.목) >

◆ 소형 타워크레인 기준 논란...노조 “파업 불사”

- 노조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국제규격보다 높다고 주장
- 노조가 제시한 규격은 독일 립펠사의 모델로 높이 25m, 지브길이 30m, 모멘트 300kN·m~400kN·m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 044-201-35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로벌 업체 타워크레인 현황 조사

- (지브길이) 타워형: 최고 55m(J5510), 러핑형: 최고 41m(STC70)
- (모멘트) 최대톤수를 인양할 수 있는 최대거리는
타워형 54%(MC58), 러핑형 73%(90NIIB)
- (높이) 자립고는 타워형 43.7m(MC68), 러핑 41.7m(040H)이고,
최고높이는 타워 87m(J5510), 러핑 150m(STC70)
- (조종실) 일부 조종실 옵션으로 설계도서 표시하나, 탈거 가능

< 글로벌 업체의 타워크레인 규격 비교 >

제조국	제작사	모델명	유형	규격				비고
				최대 하중(t)	길이(m)	최대하중 구간(m)	자립고 (m)	
미국	Terex	FC 6.24H	타워	1.5	24	10.7(45%)	43	
이태리	FM Gru	1040TLX	타워	2.4	40	18.5(46%)	42	
프랑스	Potain	MC 58	타워	2.5	42	22.5(54%)	42	조종실 옵션
프랑스	Potain	MCT 68	타워	3	46	19.7(43%)	43.7	조종실 옵션
스페인	JASO	J5510	타워	2.5	55	25.2(46%)	38.4	최대높이87
일본	JCL	030 II	러핑	2.8	30	8.5	30.8	최대높이73
일본	JCL	055 SK	러핑	2.8	31	9.5	35.5	최대높이75
일본	SK	STC 33	러핑	2.8	30	13	36	최대높이70
일본	OTS	50 NL	러핑	2.8	32	11	34	
일본	JCL	040 H	러핑	2.7	40	17	41.7	최대높이95
일본	OTS	090 NIIB	러핑	2.8	30	22(73%)	40	
일본	SK	STC 70	러핑	2.8	41	17	40	최대높이150
독일	Liebherr	L1-24	자립	2.5	25	11	19	
독일	Liebherr	30LC	타워	2.5	30	13.5(45%)	32	노조 제안
독일	Liebherr	45EC	타워	4	40	13.4(33%)	37	노조 제안

* 자립형(Self Erecting Tower Crane) : 카운터웨이트, 모터 등 제어장치가 지상에 위치하고, 유압장치 통해 마스터, 지브가 자동으로 설해체되는 장비